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30)

도공문이(徒空文耳) 다만 빈 문서일 뿐입니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자치통감을 읽다보면 황제가 정치를 잘 해 보았다고 하지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헛수고만 하는 경우를 찾아 볼 수가 있다. 당왕조는 618년에 건국하여 130여년이 지난 다음에 이른 바 '안사(安史)의 난(亂)'이라는 전란을 겪는다. 현종은 서쪽으로 도망하였고, 그 아들 숙종도 마찬 가지였다가 겨우 안록산과 사사명이 자체적으로 분열하고 분쟁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당왕조는 망하지 않고 연명하였다. 그러나 당왕조는 자기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반성도 하고 제도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였을 터였다. 어쨌건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는지 안사의 난이 끝나고 다시 30년이 지난 덕종(德宗)이 통치하던 시점에 오래간만에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쌀값이 많이 떨어져서 쌀 한 말이 150전(錢)이고 속(粟)은 80전이었다. 풍년이 들어 세금을 전폐(錢幣)로 내야 하는 백성들에게는 곡물값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었다. 이러한 때 조정에서 곡물을 높은 값에 사들이는 화적(和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곡물을 사서 군량미로 보내면 되는 것인가 정부에서 사들인다면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덕종은 드디어 곡물이 있는 현장(現場)에서 화적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적(糴)이란 정부에서 백성들이 생산한 곡물을 사들이는 것이고, 화(和)란 곡물을 사들이되 백성들과 합의하라는 뜻이다. 이 조치가 제대로 작동해 준다면 백성들에게 곡물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효과를 거두게 되니 참으로 좋은 조치일 것이다. 오랜만에 좋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치를 취한 덕종은 스스로 아주 좋은 정치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지금의 하남성 삼문협 근처에 있는 신점(新店)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그곳에 사는 백성이 조광기(趙光奇)의 집에 들어갔다. 덕종은 자기가 화적하도록 조치한 것 때문에 백성들은 즐거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광기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즐거운가?”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즐겁지 않습니다.” “이에 덕종은 다시 묻는다. “올해에는 풍년이 들었는데,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이에 조광기는 잘라서 대답하였다. “조령(詔令)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조령이란 법률과 명령이다. 정부에서 정책을 정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모두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조령의 내용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그 조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그 조령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러니 방금 내린 화적이라는 조령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었다.

조광기는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우선 전에 양세

법(兩稅法)을 정하면서 ‘앞으로 여름과 가을 두 번 만 세금을 거두고 그 외에 요역(徭役)은 없다.’고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명목으로는 세(稅)가 아니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관리들이 혹독하게 재물을 거두어 가는데, 그것이 원래의 세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하추(夏秋)로 거두는 두 번의 세금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한 조령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또 화적(和糴)을 하면서 ‘정부에서 사들이는 벼나 보리는 현장에서 차례대로 받아 주겠다.’고 하더니 정부에 판 이 곡물을 행영(行營)까지 운반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당나라는 서북쪽으로부터 이적(夷狄)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군사들을 장안의 서쪽으로 이동시켜서 군영(軍營)을 세우는데, 이 행영까지 자기가 정부에 판 곡물을 운반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광기의 말대로라면 지금이 하남성 삼문협에서 정부에 곡물을 팔았는데, 곡물을 판 사람이 그 곡물을 장안의 서쪽에 있는 행영까지 싣고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곡물이 있는 현장에서 사들이겠다는 말과 전혀 다른 것이다. 삼문협에서 장안의 서쪽에 있는 군영까지는 수 백리인데 이 거리를 운반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백성들은 자기가 판 곡물을 행영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수레를 빌리고 말을 동원하여 운반하다보면 그 비용이 곡물 값만큼 나오니 말로는 정부에서 돈을 주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로 뺏는 것이다. 화적이 아니며 그래서 돈은 1전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화적을 한다는 조령을 믿고 곡물을 정부에 팔았다가 수레는 꺾이고 말이 쓰러져 죽어 재산을 모두 잃고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의 조령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근심과 고로운 것이 이와 같은데 어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매번 조서에서는 백성들을 우대하고 구휼을 하도록 하였지만 다만 빈 문서일 뿐입니다! 아마도 성스러우신 주군께서는 아홉 겹 깊은 곳에 살고 계시니 모두 이를 아직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모처럼 좋은 정책을 꺼냈다고 생각하는 덕종(德宗)에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정치를 한다고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덕종이 어떤 조치를 했을까? 겨우 조광기의 집에 부역(賦役)을 면하게 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조령을 믿을 수 없으면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겨우 조광기만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니, 만 백성을 고루 생각해야 하는 황제로서 할 일은 아니었다.

조광기는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우선 전에 양세

덕종의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현장을 모르는 데서 온 잘못이다. 현장을 모르면서 구중궁궐에서 잘한다고 정책을 펼친 때문이다. 이 사실을 역사가 사마광은 다음과 같이 평론하였다. ‘군주가 위에서 힘써 구휼을 하여도 백성들은 이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래에서 근심에 싸여 원망하여도 군주가 알지 못하여, 떨어져 나가며 배반을 하고 위급 해져서 망하는 데에 이르는 것은 모두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소통이 없이 현장을 모르는 정치란 위망(危亡)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마광은 말한다. ‘덕종이 천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게 직접 조광기(趙光奇)를 만나서 잘못의 실체를 파악하였는데, 그에 따른 조치가 겨우 조광기 집에만 부역을 면하게 하였으나, 무릇 사해(四海)는 넓고 백성들의 무리는 많은데 어찌 사람마다 스스로 천자에게 말을 할 것이며, 집집마다 그 노역과 부세를 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여 덕종의 어리석은 조치를 지적하였다.

이 역사의 일화를 읽으면서 요즈음에는 높은 공직자,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현장을 얼마나 조사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법률을 만드는지 궁금하였다. 책상에서 현장의 조사 없이 상상력만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펼치는 것 같다. 한 가지 예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보면 집값을 잡아 보겠다고 20 몇 번의 대책을 내놓았고 법률도 만들었다는데, 집값은 반대로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사람아이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간다고 좋을 것도 없는데, 이러한 선양한 시민들은 정책이나 법률의 잘 못으로 집값을 올려놓는 바람에 앉아서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올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입은 것 이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생돈을 더 내게 된 것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월급 받아서는 평생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젊은 이들은 끊임없이 투기로 몰리고, 받는 월급을 평생 저축하여도 집 한 칸 살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젊은 사람은 살 집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결혼은 아예 생각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람이 늘어간다. 결국 인구절벽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겨우 집 한 칸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재산세 내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부동산정책의 잘 못 하나가 그 정책 하나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과급하면서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라의 장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정책을 덕종의 화적(和糴)과 비교해 보면 현장을 모르고 정책을 세우기는 마찬가지 같다. 그런데 탁상 정책은 부동산 정책 하나뿐이 아니다. 정부에서 그리 자랑하던 K 방역도, 소득주도 성장도, 교육정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세해가 밝았다. 다른 때 같으면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올해는 드러난 희망의 짜를 찾을 수가 없다. 절망적이다. 조광기가 덕종에게 한 말을 릴리자면 ‘근심과 고로운 것이 이와 같은데’ 도저히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세월은 간다. 시간이 흘러서 정책 결정자의 운명도 한 때일 뿐이라는 불변하는 역사의 진실이 있으니 참고 참으면서 희망의 메시아를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안동권문 모노골 경노당 준공

지난 2020년 11월 15일 안동시 풍산읍 노리(魯里)에서는 모노골 경노당(敬老堂) 준공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영세(權寧世) 시장을 대신한 노인복지과장과 김동랑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 김성진 경북도의원, 권기탁 안동시 의원, 남봉구 풍산읍장과 관내 각 경노당 회장을 비롯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한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경노당 신축공사 예산은 정부보조 1억3천만 원, 주민 및 출향인(出鄉人) 성금 7천만원과 부지(300여평)는 안동권씨문중에 희사금을 기탁하여 아담한 노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권호명(權號明) 노인회장은 인사말에서 금년도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속출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을 하였다.

이곳 출신 원로 권기호(權奇浩, 복야공파회장)은 전설에 의하면 모노골은 면 옛날 마을 뒷산에 모운사(慕雲寺)라는 절이 있어 모운곡(慕雲谷)이라 부르다가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흥건적(紅巾賊)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봉진



(蒙塵)했을 때 이곳에서 노국공주(魯國公主)와 함께 신석현(申石峴, 납들고개)에서 묵어갔다고 하여 그리워함 모(慕), 노나라 노(魯), 골곡(谷)에서 모노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마을의 내력은 안동권씨복야공파 판서공(判書公, 휘호: 인鞠(15세)의 8대 주손) 정산공(鼎山公)과(高譜: 유紐23세)의 후예들의 집성촌으로 100여호가 살고 있었으며 지금도 후손들은 경향작지에서 기업인, 공무원, 정치가, 판검사, 외교관,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안동권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종회(大眾會)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오익

‘민족해방운동을 이끈 가일 마을’을 주제로

근대사 인물 추모 학술 강연회 열리다



서도 일제 경찰로부터 “군자 담디”는 친탄을 받을 정도로 의연함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우암공은 복야공파이며 태사공 33세이다. 20세 화산(花山) 권주(權柱, 1457-1505)와 27세 병곡(屏谷) 권구(權渠, 1672-1749)를 이어 학

문에 정진하였으며 수곡(樹谷) 권보(權補)의 5세손, 우유당(禹裕堂)의 손자이고, 정암(鄭菴)이 생부(生父)이다. 수곡공(樹谷公)의 주손으로 입후되어 위기(爲己)와 수제(修齊)의 학문으로 능동재사에서 《소학》을 강하기도 하였고 《우암문집》 8권 4책을 남기셨다.

공공께서 평소 수기자인 하던 수곡고려는 중요 민속문화재 제176호 지정되었으며 공의 영향을 받은 손자 오상(五尚, 1900-1928, 건국훈장애족장 2005년), 오운(五雲, 1904-1927), 오현(五憲, 1905-1950)도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우암 권준희(1849-1936)는 자가 계상(啓象), 우암(友巖)은 호이며, 광복회 독립군 자금 모집 활동 등 국권회복 운동에 인정되어 2018년 8월 15일 독립운동 유공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으며 특히 마을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 하도록 큰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1913년 조직된 풍기광복단과 1915년 대한 광복회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 밭각, 체포되어 고령인 71세에 공주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

자료제공: 독립지사 우암선조 기념사업회

謹 賀 新 年

존경하는 안동권씨 100만 족친 여러분, 15개 파종회회장단 회장님, 전국 60여개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님, 전국 32개 전국청장년회 회장님,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족친 여러분! 2020 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깃드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회장 권갑수
사무국장 권영홍



회장 권갑수

지역	회장	사무국장									
강릉	권순근	권오범	부산	권갑수	권영홍	영주	권오현	권용일	창원	권영민	권중수
경주	권택규	권동환	산청	권병국	권희성	영천	권창섭	권병일	청송	권용호	권영호
광주	권석주	권영덕	상주	권병국	권오상	예천	권세은	권일수	청주	권광택	권혁만
구미	권혁빈	권기용	서울	권정호	권순용	울산	권명달	권응묵	합천	권영욱	권덕현
담양	권공식	권창만	시흥	권오정	권기형	원주	권창구	권혁남	일본	권영철	
대구	권기현	권기조	안강	권택전	권내언	의성	권영길	권미란			
대전	권영인	권선교	안동	권대능	권중익	음성	권병택	권오문			
문경	권익	권우득	안양	권순보	권인상	제천	권기화	권형기			
봉화	권영만	권오서	영덕	공석	권영태	진천	권정욱	권순성			

安東權氏 全國青壯年會長協議會 會長 권갑수